



numbers

vol. 242

개신교인의 용서에 대한 인식

개신교인 63%,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 생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장래인구추계 : 17개 시도편
- ② 한국인의 여가시간

[넘버즈 칼럼]

동성애 '성전환' 그 위험과 허상

2024. 6. 4.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개신교인 63%,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 생긴다!

개신교는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이다. 사랑과 용서는 갈등과 다툼이 이미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자. 한국은 현재 대다수의 국민이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지할 만큼 사회 갈등수준이 높은 상태이다. 대체로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지만 갈등 영역은 젠더, 세대, 빈부, 지역 등을 막론한다. 이와 같은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들 간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개신교인은 용서에 대해 어떤 경험과 인식을 하고 있을까? 또한 한국교회는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독교 연구기관인 기독교인문학연구원/이음사회문화연구원,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최근 '갈등과 용서 및 화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번호에서는 개신교인의 사회 갈등 및 용서, 화해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교회가 사회 갈등 해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갈등과 용서 및 화해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방법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조사 기간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4일
조사 의뢰 기관	기독인문학연구원, 이음사회문화연구원
조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진행 :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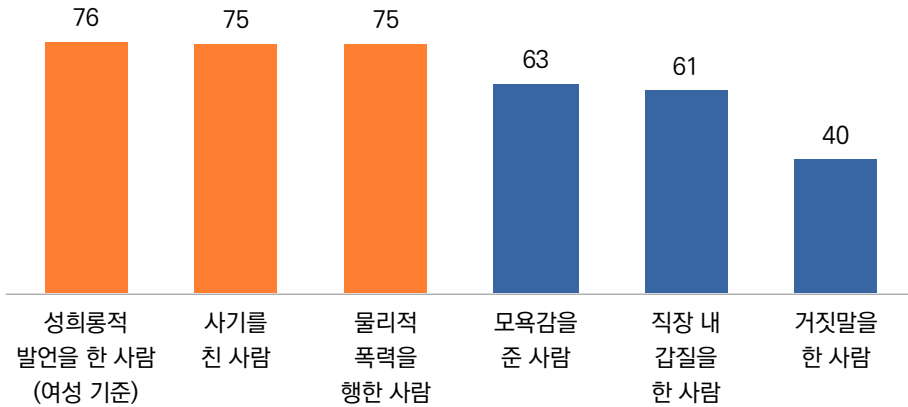
01

[용서 인식 및 경험]

개신교인 4명 중 3명, '성희롱', '사기', '폭력' 용서 못 해

- 개신교인은 자신이 사기, 폭력, 갑질 등을 당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용서할 수 없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람(여성 응답자 기준)' 76%, '사기를 친 사람' 75%, '물리적 폭력을 행한 사람' 75%로 세가지 유형이 비슷하게 높았다.
- 전반적으로 신체적 위해, 경제적 손실 등 법적 처벌 영역의 행위일수록 용서 불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자신이 당한 행동별 용서 불가 비율*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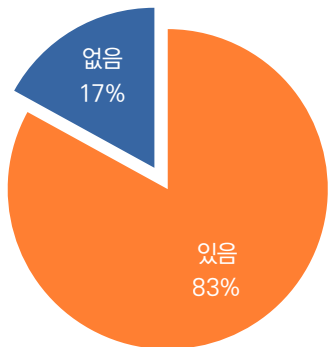


*4점 척도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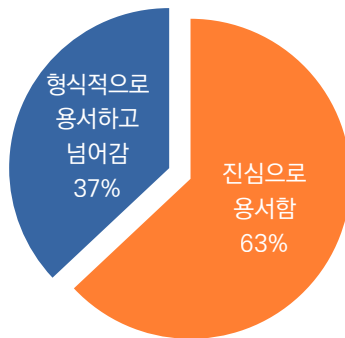
용서 경험 개신교인,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했다' 63%!

- 성인이 된 이후,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개신교인의 대부분(83%)이 용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용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상대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물었더니 '진심으로 용서했다' 63%, '형식적으로 용서하고 넘어감' 37%로, 3명 중 2명 가까이 진심으로 용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용서의 경험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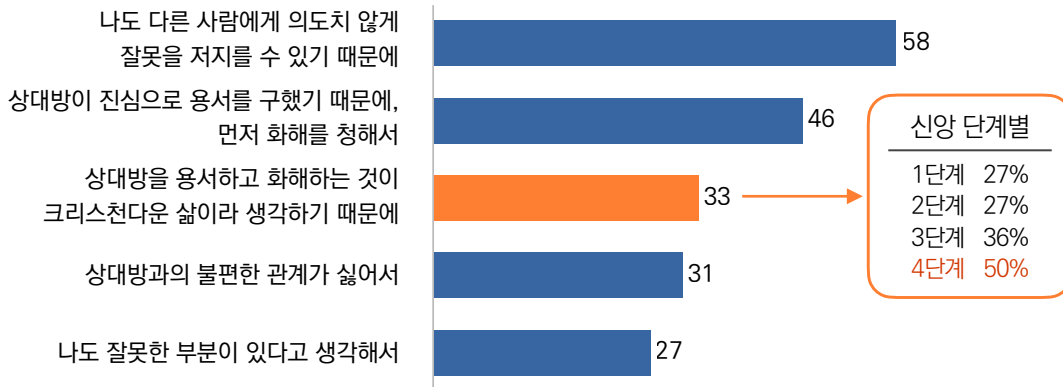
[그림] 용서의 형태 (용서 경험 개신교인)



개신교인 3명 중 1명, '용서가 크리스천다운 삶이어서 용서했다'

- 이번에는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동기를 물었다. 그 결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가 5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이어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46%,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크리스천다운 삶이라 생각해서' 33% 등의 순이었다.
- 신앙이 용서의 동기로 작용한 '상대방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크리스천다운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의 응답 비율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용서 동기(용서 경험 개신교인, 1+2순위, 상위 5위, %)



Note) 신앙단계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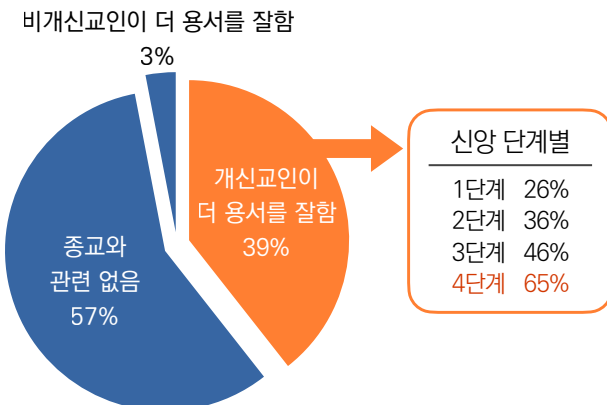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02 [종교/신앙과 용서 인식] 개신교인, 비개신교인보다 훨씬 더 용서 잘한다고 생각!

-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 '용서' 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을까? '개신교이든 비개신교인이든 차이 없다'는 인식이 57%, '개신교인이 더 용서를 잘한다' 39%, '비개신교인이 더 용서를 잘한다' 3%로 '차이 없음'을 빼고 비교하면 비개신교인보다는 개신교인이 더 용서를 잘한다는 인식이 훨씬 강했다.
- '개신교인이 더 용서를 잘한다' 응답률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용서 비교* (개신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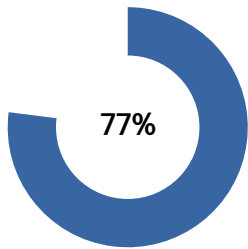
*비/개신교인이 더 용서를 잘함: '더 잘 한다 + 더 잘 하는 편이다' 비율

개신교인 63%,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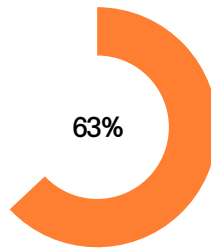
- 종교와 신앙은 용서와 어떤 상관성이 있거나 혹은 용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종교/신앙과 용서에 대한 문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했다. '개신교인이어도 상황에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에 개신교인 10명 중 8명 가까이(77%)가 동의해 개신교인일지라도 무조건적 용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63%가 '그렇다'고 응답해 '기도가 용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종교/신앙과 용서 인식 (개신교인,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개신교인이어도 상황에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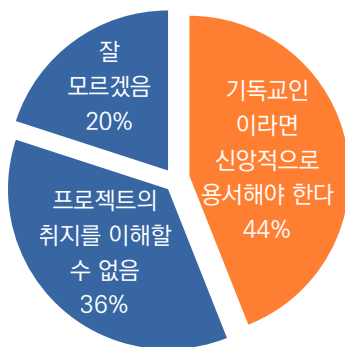
*4점 척도

가족 죽인 가해자, 나라면 용서할 수 있을 것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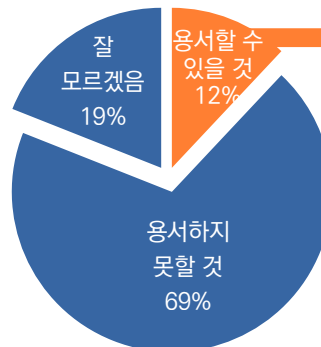
- '용서 프로젝트'란 자기 가족을 죽인 가해자를 신앙적인 이유로 용서하겠다는 피해자 가족의 모임을 말한다. '용서 프로젝트의 취지'의 이해와 '자신의 경우라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물었다.
- 먼저 '용서 프로젝트의 취지'에 대해서는 '취지를 이해한다' 즉,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44%로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36%)보다 많았다. 그러나 '만약 나라면'으로 질문을 바꾸면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69%)가 '용서할 수 있을 것'(1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내 가족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란 응답이 12%나 돼 주목된다. '나라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용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취지에 대한 이해



만약 나라면



신앙 단계별

1단계	7%
2단계	11%
3단계	14%
4단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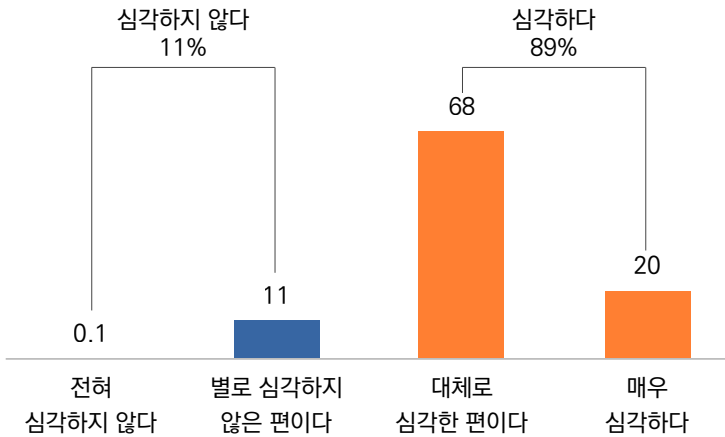
03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개신교인 대다수,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고 인식!

-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고 생각하는지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물었다. 그 결과, 개신교인 대다수(89%)는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그중 '매우 심각하다'가 20%로 5명 중 1명은 사회 갈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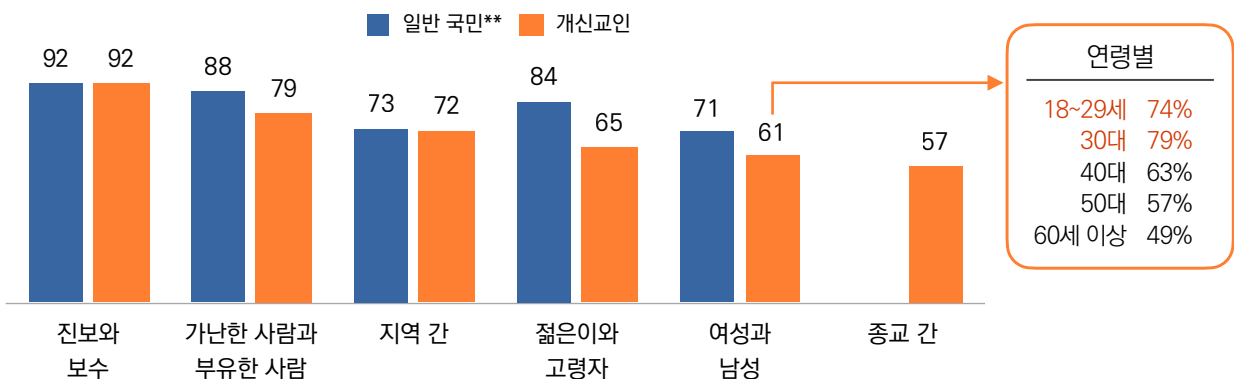
[그림] 사회 갈등 심각성 (개신교인, %)



개신교인, 일반국민보다 세대갈등 인식 낮아

- 개신교인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집단별 갈등 정도는 어떠한가? 사회 각 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 정도를 평가한 결과 '진보와 보수 갈등'이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빈부 갈등'(79%), '지역 간 갈등'(72%) 순이었다.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간 갈등'은 2030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국민 대상의 유사한 질문과 비교해 보면 '진보와 보수 갈등'이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개신교인이 일반 국민에 비해 갈등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젊은이와 고령자 간 갈등'과 '여성과 남성 간 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10%p 이상 낮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사회 집단별 갈등 심각성 인식 ('매우+약간 심각하다'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집단별 갈등인식 - 2023년] 이념갈등,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갈등 축', 2023.05.23.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5.12.-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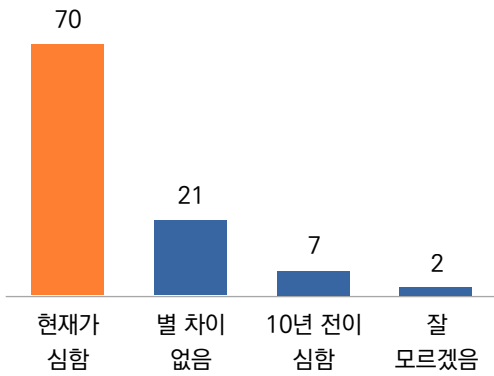
*4점 척도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은 '부유층과 서민층', '수도권과 지방'은 '영남과 호남', '젊은이와 고령자'는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가 원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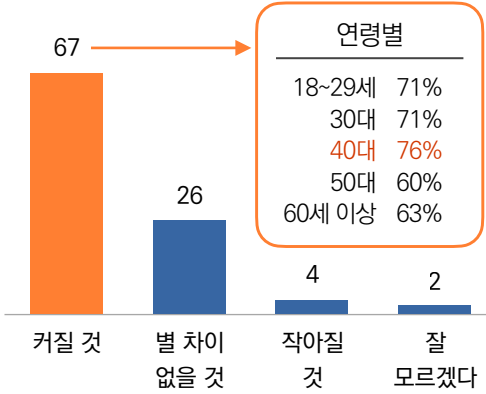
개신교인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갈등 앞으로 더 커질 것'!

- 사회 갈등 수준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10년 전 대비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와 '향후 사회 갈등 변화 예상'에 관해 물었다. 개신교인 10명 중 7명(70%)은 '현재가 10년 전보다 심하다'고 응답해, 사회 갈등이 과거 대비 현재 더 심화했다고 느끼고 있었고, 앞으로 사회 갈등에 대한 전망 역시 3명 중 2명(67%)이 '커질 것'이라 응답해 비관적이고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특히 40대의 경우 사회 갈등이 '커질 것'이라 예상한 비율이 4명 중 3명(76%)에 달했다.

[그림] 10년 전 대비 사회 갈등 정도 (개신교인, %)



[그림] 향후 사회 갈등 예상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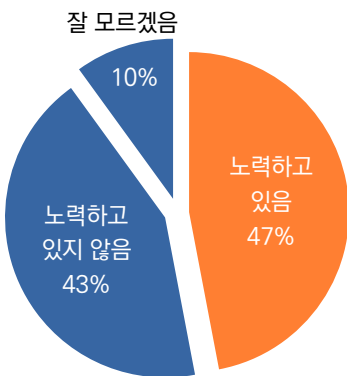
04

[한국교회와 사회 갈등]

'한국교회,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47%!

- 한국교회가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개신교인들에게 물었다. 그 결과, 개신교인의 47%가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 43%보다는 약간 더 높았으나 절반에는 못 미쳤다. 한국교회가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한국교회의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정도 (개신교인)



개신교인, 사회 갈등을 위한 '종교단체'의 노력 높이 평가!

- 우리 사회 갈등 완화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체를 물어 일반 국민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집단별 순위를 매겼다.
- 개신교인의 경우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체'로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종교단체', '시민단체', '개인'이 가장 높았다. 반면 '일반 국민'은 '교육계'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노력한다고 인식했고, 이어 '기업', '정부' 등의 순이었다. '종교 단체'는 4위를 차지해 개신교인들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Note) 일반 국민의 경우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정도를 절대평가(5점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상대평가로 묻은 개신교인 조사와 질문방식이 다름에 유의할 것

[표]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주체 (상위 5위)

순위	개신교인 (1순위 응답률)	일반 국민 (항목별 '매우+약간 노력한다 비율*')
1	종교단체 (22%)	교육계 (35%)
2	시민단체 (20%)	기업 (31%)
3	개인 (19%)	정부 (30%)
4	정부 (16%)	종교단체 (28%)
5	언론 (6%)	시민단체 (28%)
6	기업 (4%)	언론 (27%)
7	국회 (4%)	법조계 (25%)
8	교육계/기관 (4%)	노동조합단체 (20%)
9		국회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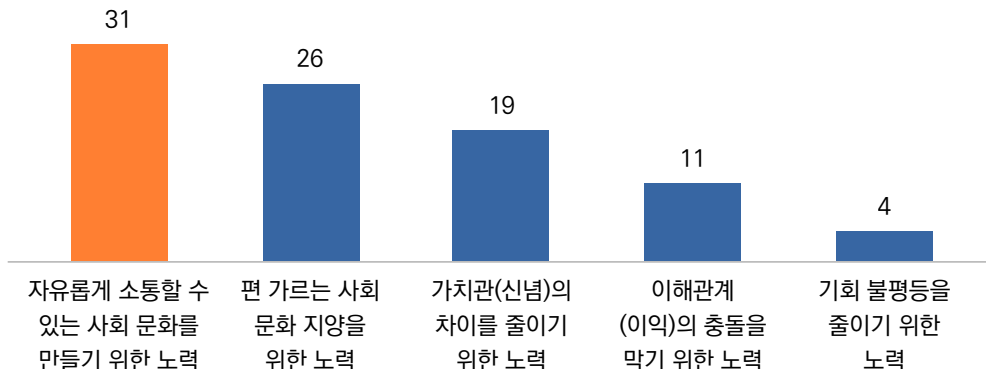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4.01.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221명, 면접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3.09.01.~10.31.)

*5점 척도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 노력'!

- 한국교회는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 문화 만들기 위한 노력'이 3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 가르는 사회 문화 지양을 위한 노력' 26%, '가치관(신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 19% 등의 순이었다.
-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1순위로 꼽은 것은 한국교회가 '편을 가르고 배타적인 이미지'를 먼저 털어내고, 교회 내부에서부터 이념, 세대, 남녀 등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한국교회의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해야 하는 것 (개신교인, 상위 5위, %)



이번호 요약

1. 개신교인 대부분 용서의 경험 있어

- 개신교인의 83%가 용서의 경험이 있으며, 이 중 63%가 '진심으로 용서했다'고 응답했다.

2. 신앙이 용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 개신교인은 개신교인(39%)이 비개신교인(3%)보다 훨씬 더 용서를 잘한다고 인식한다.
- '기도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에 65%의 개신교인이 동의했다.

3. 가족 죽인 가해자, 나라면 용서할 수 있을 것 12%

- 자기 가족을 죽인 가해자를 신앙적인 이유로 용서하는 모임의 '용서 프로젝트'에 대해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적으로 용서해야 한다'가 44%로 '이해할 수 없다'(36%)보다 높았다.
- '만약 나라면 가족을 죽인 가해자를 신앙적인 이유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69%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용서할 수 있을 것'이란 응답도 12%나 돼 주목된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우리사회의 갈등, 용서, 화해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회 \[기독교인문학연구원\]](#)
- ▶ [\[기사\] 사라야,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리 없어! \[국민일보 더미션\]](#)
- ▶ [\[서적\]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 \[새물결플러스\]](#)

관련 성경 구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14~15)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17:3)

목회 적용점

1. 용서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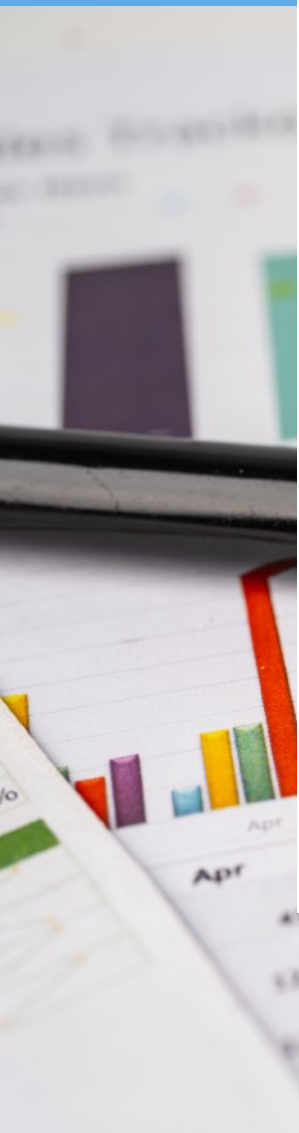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다만 가해자의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2.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한 관심 필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용서는 값싼 감정도 아니고 종교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도 아니다.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복구되고 정신적 상처가 해결되어야 가능한 어려운 문제이다. 피해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피해자 자신의 치유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교회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장래인구추계 : 17개 시도편
2. 한국인의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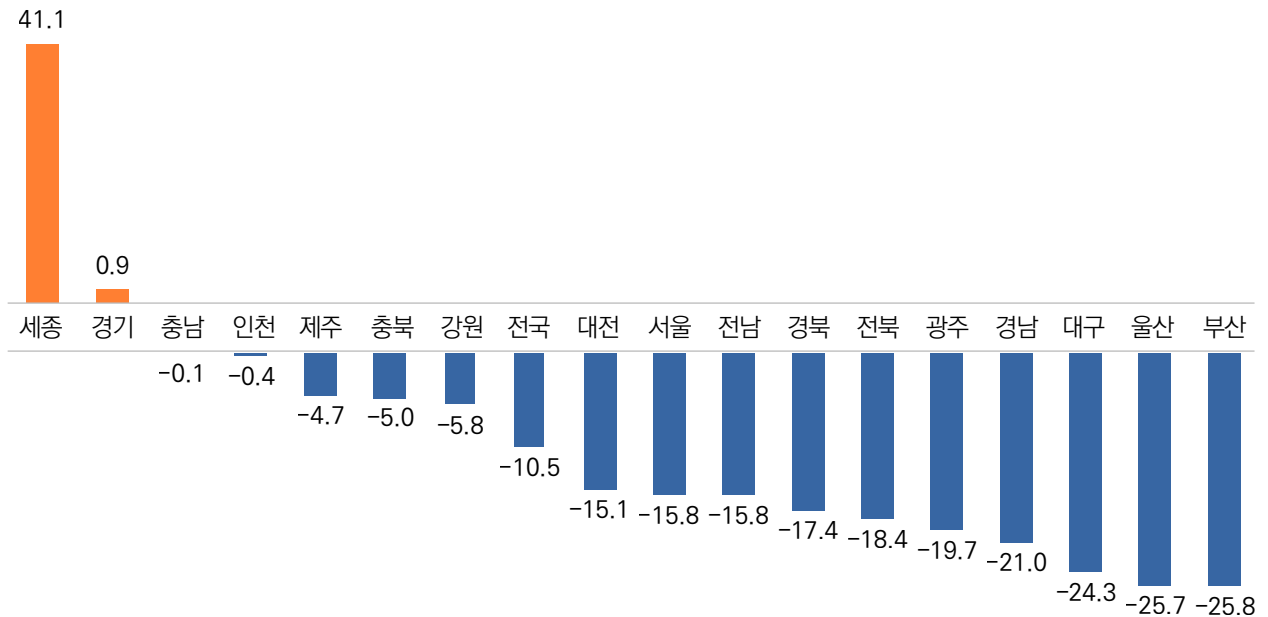
[장래인구추계 : 17개 시도편] 30년 후 인구, 다른 모든 지역은 감소하나 세종·경기는 증가

- 통계청에서 최근까지의 시도별 인구변동 요인(출생, 사망, 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장래인구 추계(시도편): 2022~2052년'을 발표했다. 향후 30년 뒤 우리나라 각 시도별 인구는 어떤 변화를 겪을지 이를 통해 살펴본다.
- 우선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 대비 2052년 4,627만 명으로 1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세종(16만 명, +41.1%)과 경기(12만 명, +0.9%)만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20%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부산(-85만 명, -25.8%), 경남(-69만 명, -21.0%), 대구(-58만 명, -24.3%) 순이다.

[그림] 총인구 전망 (중위추계 기준, 만 명)



[그림] 30년 후 시도별 총인구 증감률 전망 (2052년 기준, 중위추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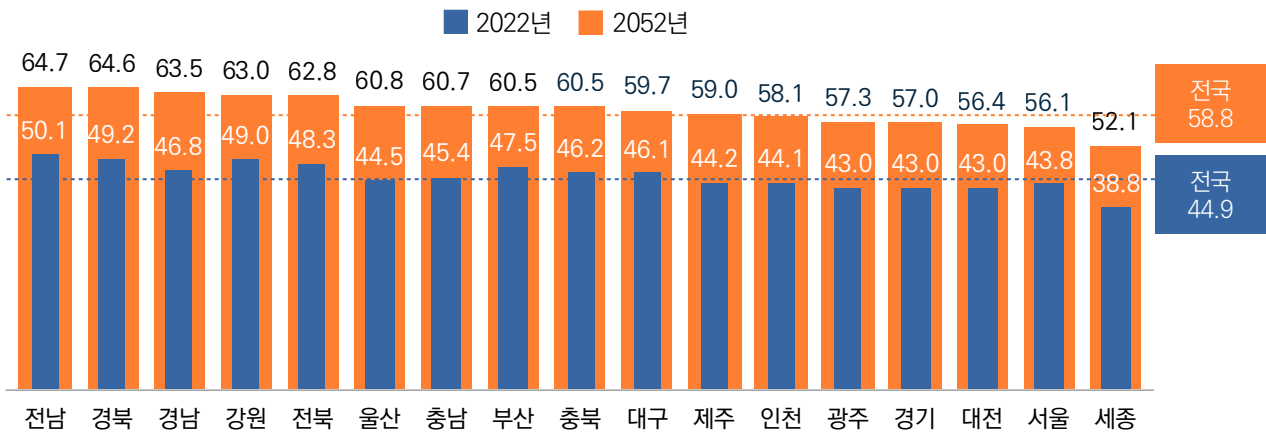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2024.05.28.

중위연령, 2022년 44.9세 → 2052년 58.8세!

- 이번에는 시도별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사람의 연령)을 살펴본다. 2022년 우리나라 전국 기준 중위연령은 44.9세였는데 30년 뒤인 2052년에는 58.8세로 무려 14세가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2052년 중위연령은 전남이 64.7세로 가장 높고, 세종이 52.1세로 가장 낮았으며, 60세를 넘어서는 경우는 17개 시도 중 9개(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부산, 울산)에 달했다.

[그림] 시도별 중위연령 변화 (세)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2024.05.28.

전라·경상·강원, 30년 후에 인구 절반이 노인!

- 앞으로 30년 후 우리나라 시도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22년 고령인구 비중은 17.4%로 고령사회(14% 이상)에 해당했는데 2052년은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를 훨씬 넘어서는 40.8%로 예측했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는 2052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를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표] 시도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상위 5위)

	2022년	2052년
전국	17.4%	40.8%
1	전남(24.4%)	전남(49.6%)
2	경북(22.7%)	경북(49.4%)
3	전북(22.3%)	경남(47.8%)
4	강원(21.9%)	강원(47.1%)
5	부산(20.9%)	전북(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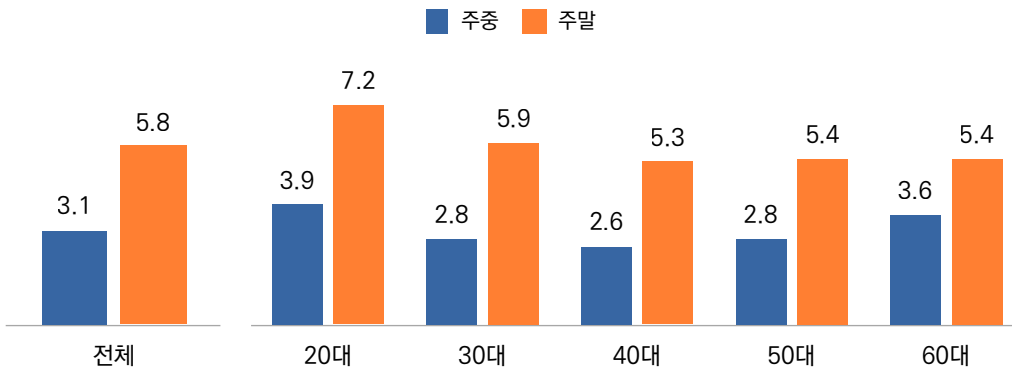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2024.05.28.



[한국인의 여가시간] 우리 국민,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3시간 남짓!

-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주중(평일) 하루 평균 3.1시간, 주말 하루 평균 5.8시간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주중, 주말 통틀어 가장 여가시간이 긴 반면, 40대가 가장 짧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40대가 일상 생활이 분주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하루 평균 여가시간 (일반 국민,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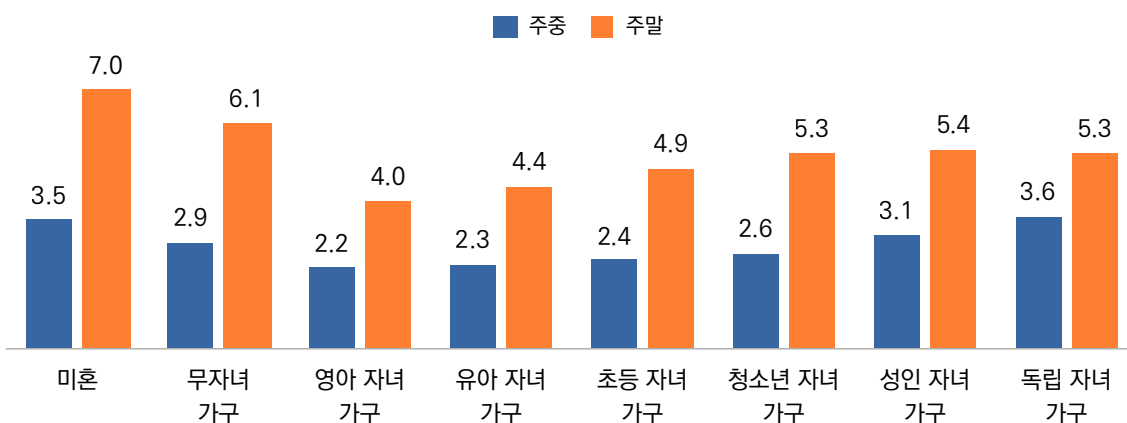


※출처: 컨슈머인사이트 '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 2024.05.16. (19세 이상 성인 매주 500명씩 조사하여 2023년 1년간 총 27,426명 여가시간 분석)

영아 자녀 둔 가구, 여가시간 최빈곤층!

- 이번에는 주중/주말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성장 단계 등을 고려한 가구 구성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주중(평일) 기준,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미혼'과 자녀를 출가시킨 '독립 자녀 가구'가 3시간 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주말의 경우 '미혼'이 7시간으로 가장 많은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 전반적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여가시간이 짧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영아(1~3세) 자녀 가구'의 경우 평일 2.2시간, 주말 4.0시간으로 가장 여가시간이 적었다. 교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여가 활동을 돕고 여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가구 구성 유형별* 하루 평균 여가시간 (일반 국민, 시간)



※출처: 컨슈머인사이트 '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 2024.05.16. (19세 이상 성인 매주 500명씩 조사하여 2023년 1년간 총 27,426명 여가시간 분석)

*결혼 여부 및 막내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

동성애 ‘성전환’ 그 위험과 허상

이동열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교수학 교수, 더샘물교회 협동목사

지난 10년 동안 성소수자들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성소수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작년 세계에서 가장 큰 리서치 기업 중 하나인 Ipsos는 전 세계 30개 국가, 75세 미만 성인 22,514명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LGBT+ Pride 2023: A 30-Country Ipsos Global Advisor Survey”를 발표했다.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조사에 따르면 30개국 평균 성인의 3%가 레즈비언 또는 게이라고 밝혔고, 4%는 양성애자로 밝혔으며 각각 범성애자와 무성애자가 1%씩 조사되었다. 세대별로 비율의 격차가 뚜렷한데 Z세대의 경우 밀레니엄 세대보다 2배,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4배 정도 비율이 높았다. 성정체성의 경우 30개국 평균 3% 정도가 남성 혹은 여성이 아닌 다른 성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30개국 평균보다는 조금 수치가 낮았는데 성적 지향성과 관련해서는 6%, 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2%가 성소수자 범주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2021년 수치와 비교해서 각각 2%와 1%가 상승한 것으로 보아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성소수자 증가 추세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통계를 통해 최근 들어 성소수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왜 최근 들어 이토록 성소수자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급증하는가? 물론 젠더 이데올로기의 철학적 뿌리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사상가들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했으며 활동가들이 성혁명을 사회와 문화 전반에 일으켰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철학적 및 역사적 배경은 생략하고 최근 10년간 젊은 세대들 사이에 성소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제적인 이유와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가정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루고자 한다.

2023년 미국 비영리 교육 단체인 PragerU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Detrans”가 공개되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다큐멘터리는 성전환 치료 및 수술을 한 이후 이를 후회하고 다시 본래의 성별로 돌아온 몇몇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일 때에 성전환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실상을 폭로하였다. 소셜 미디어와 특정 의료 전문가들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선불리 성전환을 시도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성전환자들이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각각이 지지하는 입장에 따라 의견이 분분했지만 정치적 입장과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한 가지 모두가 인정하는 바가 있었다. 미성년일 때에 너무 쉽게 성전환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디트랜스와 관련된 연구 조사 및 통계가 전무하기에 단지 몇몇 사람들의 인터뷰를 근거로 과연 트랜스젠더를 비판하는 것이 정당인지에 대해 다큐멘터리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아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중인 미성년자들이 성전환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ethics.com/%EC%A0%80%EC%9E%A5%EC%86%8C/170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기관\) 리포트 제123호 \(2024년 5월 5주\)](#)

- 국정운영 평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견해,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견해 등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85호 \(2024년 5월 5주\)](#)

- 정당별 호감도, 22대 국회 전망 등

사회 일반

[복권 구입, 10집 중 1집꼴 '5년내 최대'...월평균 7천300원 지출](#)

연합뉴스_2024.5.30.

[연금 말고도 월 100만원 나온다...4050 '평생 돈줄' 전략](#)

중앙일보_2024.5.30.

[2025 의대 신입생 4천610명 뽑는다...전년 대비 1천497명 ↑](#)

연합뉴스_2024.5.30.

[통합위 "국민 35% '남녀평등' 인식...20대 불평등 인식 높아"](#)

연합뉴스_2024.5.27.

[부모-자녀 모두 부양 '마쳐세대' 60년대생...30% "난 고독사할 것"](#)

연합뉴스_2024.6.3.

[커지는 웨딩마치 소리... 초혼 건수 4년만에 최고](#)

조선일보_2024.6.1.

['치정 살인'에 나이는 없다... 40~60대 데이트 폭력 34%](#)

조선일보_2024.6.1.

[서울 맞벌이 가정, 네 집 중 한 집은 "우울"...하루 중 휴식은 1시간](#)

경향신문_2024.6.1.

[보사연 "아동수당, 17세까지 지원해야...저출산 대책으로 확대 필요"](#)

중앙일보_2024.5.27.

[젊은 여성 지방 떠난다, 이러니 '나술'...저출생 뒤편 무너진 성비](#)

중앙일보_2024.5.30.

[\[2024 대북인식조사\]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 및 통일가능성](#)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5.28.

[자기\(Self\) 이미지 선망 니즈 관련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5.29.

[캠핑·출장·골프용으로... 차 빌리는 4050 늘어난다](#)

조선일보_2024.6.4.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인공지능 도입 뒤 더 열악해진 상담환경](#)

한겨레_2024.6.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기업 10곳 중 7곳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위기 도래"](#)

연합뉴스_2024.5.29.

['남녀 고용평등' 노력 외면한 기업·공공기관 32곳 명단 공개](#)

연합뉴스_2024.5.29.

['주 4일제' 긍정응답, 대리급 91.2%, 임원급은 65.3%](#)

조선일보_2024.5.27.

[체질 바꾼 중소기업 2분기 연속 수출 증가](#)

조선일보_2024.5.29.

[직장인 생각하는 고연봉 8550만원...지름길은 승진보다 '이직'](#)

중앙일보_2024.5.30.

청소년 · 청년

[공부 내몰리는 초등학생들...20% "수업외 하루 4시간 이상 공부"](#)

연합뉴스_2024.5.29.

[청소년 최애 직장은 "대기업"...직업선택 기준 "내 능력"](#)

연합뉴스_2024.5.29.

[MZ세대 "살고 싶은 도시? 비수도권도 좋아...단, 정주 여건 잘 갖춰져야"](#)

한겨레_2024.5.30.

국제 · 환경

['메신저만 올리네' 고립의 유행병...미국서 외로운 직장인 급증](#)

연합뉴스_2024.5.28.

[日공무원 인기 하락에...행정고시 지원자·도쿄대 합격자 최소](#)

연합뉴스_2024.5.29.

[학업? 취업? 구직?...'그냥 쉰다'는 브라질 14~24세 청소년 급증](#)

연합뉴스_2024.5.29.

[태국도 저출산 문제 비상... "가임연령 인구 41% 결혼 원치 않아"](#)

연합뉴스_2024.5.28.

건강

[한국인 나트륨 섭취, WHO 권고량 1.5배... "배달음식 영향"](#)

동아일보_2024.5.3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기독교 · 종교

[\[미션 특\] 교회마다 교육전도사 모시는 게 큰 숙제라는데...](#)

더미션(국민일보)_2024.5.29.

[\[기성\]교인 수 38만명, 전년보다 '감소'...목사·교회 수는 '증가'](#)

아이굿뉴스_2024.5.29.

["목회자 정년 연장 반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미션(국민일보)_2024.6.4.

기획기사 : [저출생 부추기는 세금제도], 조선일보

[\[상\] 16년째 150만원, 한푼도 안 오른 '자녀 공제' _2024.5.20.](#)

[\[중\] 황당한 다둥이 소득공제... 셋째 낳아 방 4개 전셋집 옮겼더니 혜택 사라져 _2024.5.20.](#)

[\[하\] 아이 돌보미 비용 세액공제, 프랑스는 50% 한국은 0% _2024.5.20.](#)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구승업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원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